

완도군, 블루카본 중심 해조류산업 선도한다

내달 6~7일 '국제해조류심포지엄'...산업 발전 방안 모색 국내외 조류학 연구자 등 참석...기술 개발 현황 등 공유

완도군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해조류 산업 육성·선도를 위한 국제 학술행사를 마련했다.

14일 완도군에 따르면 5월 6~7일 이틀간 조선대학교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에서 '완도국제해조류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완도군 주최, (사)한국조류학회 주관하는 행사로, 5월 2일부터 7일까지 완도 해변공원과 해양자유센터 일원에서 '기후 리더! 해조류가 여는 바

다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2026 pre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행사 일환으로 진행된다.

심포지엄은 해조류 산업 발전 방안 모색과 학술 교류를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국내외 조류학 연구자와 해조류 산업 관계자, 정부·관계 기관, 어업인 등 3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최근 조류 연구의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연구 성과와 현안을 공유하며 심도 있

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해조류를 활용한 바이오 에너지 기술 개발 현황과 발전 방안을 제시해 관련 산업의 기준과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의 Alan Critchley 박사와 KAIST 김승도 교수의 기초 강연을 시작으로, 해조류 블루카본 IPCC 인증을 위한 국내외 연구 동향, 신규 탄소 흡수원 인증을 위한 국제 협력 방안, 기후변화 대응 고수온 적합형(아열대성) 양식종 개발, 전통 연근해 양식과 스마트 양식 공존 전략, 해조류 바이오 매스의 기후 테크 활용 가능성 등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바이오 플라스틱·가스, 배양육·대체육, 반추동물·어류·전복 사료, 비료 등

해조류 기반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기후변화와 유해 조류 증가가 해조류 생산에 미치는 영향과 유해 조류 대발생 변화 전망에 대한 발표도 진행된다. 해조류박람회추진단은 심포지엄 참가 해외 연사를 대상으로 완도 해조류·전복 양식장을 방문하는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기후변화 대응과 해조류 블루카본 인증 등 군이 추진해 온 정책들을 공유하고 해조류 산업이 나아가 갈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어업인과 관계 기관 등에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김해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완도군이 지난 2017년에 개최한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의 해조류 심포지엄 참석자 단체 사진. 사진제공=완도군청

해남, '전국 최대 친환경 농업 1번지' 위상 강화

군, 올해 51개 사업 207억 투자...지속가능 농업 기반 구축

해남군이 전국 최대 친환경 농업군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올해도 관련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14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해남군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은 4940ha로, 유기농 2496ha, 무농약 2444ha로 집계돼 전년 대비 476ha 증가했다.

기후변화대응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는 저탄소 농업 인증 면적 또한 1089ha로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남군은 전남도가 주관한 '2025년 친환경농업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군은 정부의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

에 발맞춰 유기농 중심의 고품질 생산체계 구축과 인증면적 확대, 청년농 육성, 자체 지원 등 친환경 농업기반 강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으로, 올해 총 51개 사업에 207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친환경 인증농가에 직불제 지원과 함께 인증비의 80~100%를 지원하고,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을 통해 인증 단계·품목별로 최대 180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또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유기질비료 4만2000t을 5000여 농가에 공급하고, 해남·삼산·복일·옥천·계곡·마산에는 규산질·석회 등 토양개량제 68만

1000포를 공급한다. 또 친환경 농가의 가장 큰 어려움인 병해충·잡초 방제를 위해 새끼우렁이 구입비를 친환경 재배 농가에 100% 지원하고, 공동방제와 농기계 지원을 통해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

아울러 1600여 친환경 농가를 대상으로 출하 전 잔류농약 463종 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유기농 중심의 다양한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 해남농업의 경쟁력이다"며 "친환경 농업 1번지의 위상을 지키고,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경영 안정을 위해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해남을 벼농사 들녘. 사진제공=해남군청

영암, 소상공인 스마트기기 지원...디지털 전환 속도

키오스크 등 도입비 최대 100만원...13개소 선정

영암군은 소상공인의 경영 효율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기기 도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4일 영암군에 따르면 온라인 주문 확대와 비대면 소비 증가 등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키오스크, 스마트오더, 무인판매기 등 스마트 기술기기 도입

비용을 지원해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문·결제 편의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영암군에 사업장을 두고 정상 영업 중인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며, 최근 3년 이내 유사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와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제외된다.

선정된 업체에는 도입 비용의 80% 범

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되며, 총 13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영암군청 지역순환경제과 방문 또는 이메일·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학준 영암군 지역순환경제과장은 "디지털 기술 도입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암=한정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강진, 여성친화 특화사업 공모 선정

안심귀갓길 안전체계 구축

강진군은 전남도가 주관한 '전남행복드림 여성친화 특화사업 공모'에 선정돼 여성과 아동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여성·아동 안심귀갓길 안전체계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총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여성과 아동의 통학로와 귀갓길 안전을 강화하고,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특히 학교

와 돌봄시설 인근 생활권, 정류장과 주거지를 연결하는 보행 동선 중 상대적으로 안전 취약 요소가 있는 구간을 중심으로 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벽화 정비사업은 학교 앞이나 생활권 주변의 탈색되거나 훼손된 벽화를 정비해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단순한 미관 정비를 넘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인 CPTED 개념을 반영해 밝고 개방감 있는 공간으로 개선함으로써, 안전 체감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여성 안심 귀갓길 위치표지판 설치 사



업은 터미널, 학교 주변, 주거지 연결 구간 등 여성과 아동의 이용이 많은 귀갓길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표지판에는 현재 위치, 거리정보 등을 표기하고, 태양광 조명 기능을 적용해 야간에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할 계획이다.

강진=이진목 기자 sa432252@gwangnam.co.kr

www.global-dh.com

CUSTOMER SATISFACTION

고객 만족 실현을 최우선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DH Group